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22

2017. 1. 9

서울시 반려동물센터 도입방안

유기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22

2017. 1. 9

서울시 반려동물센터 도입방안

요약 3
Ⅰ. 서울시 반려동물의 현주소 4
Ⅱ. 반려동물센터 도입의 필요성과 여건 12
Ⅲ. 서울시 반려동물센터 도입방안 17

유기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2-2149-1157
keeyy@si.re.kr

요약

서울의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관련 산업도 성장세에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유기행위는 지속되고 있고 관련 정책은 주로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대책에 한정되어 자치구가 위탁의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행정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외국의 공공 또는 민간 동물복지시설은 사육포기동물 인수와 교육을 포함한 폭넓은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도 유사 시설의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사육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기반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12년 사이 20.4%로 증가하였으나 사육기반은 제자리

2004년 17.4%였던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2016년 20.4%로 증가했다. 관련 산업도 연 1조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고 2020년까지 3~4배 성장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지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동물을 구하는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연간 약 9천 마리의 유기동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치구는 대부분 행정인력 1명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여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관리만으로도 벅찬 실정이다. 서울시는 동물분양센터 1개소와 반려동물놀이터 3개소가 동물보호를 위한 시설의 전부이다. 민간보호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가 공공부문의 부족한 역할을 제한적으로 메워주고 있다.

외국도시 같은 동물복지시설의 도입을 추진하여 바른 반려동물 사육문화 정착 시도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중은 29%에 달할 전망이나 그중 24%는 사육방법도 모른 채 반려동물을 얻고 2%는 유기충동을 자주 느낀다고 한다. 유기동물을 사후에 관리하는 대책이 아니라 사전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육포기동물 인수, 교육, 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도시의 동물복지시설 기능과 운영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서울시민도 외국과 비슷한 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하였다(93%).

반려동물센터를 서남권에 우선 설치하여 효과를 확인하고 권역별 시설로 확대 추진

자치구와의 역할 분담, 시장과 기능 중복 배제, 도심 입지 등을 감안하면 반려동물센터의 기능은 사육포기동물 인수, 입양, 교육, 연구개발, 상담, 지역활동가 플랫폼, 동물병원(저소득층의 동물치료, 중성화수술) 등이 적절하다. 반려동물센터는 생활권역별로 최대 4개소 이내로 확보하되 거주인구가 많은 서남권에 1차 사업을 추진한다. 기본계획용역은 투자심사와 세부 추진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Ⅰ. 서울시 반려동물의 현주소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증가 추세

반려동물 보유가구 12년 새 3% 증가

ㅇ 2016년 서울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20.4%[1)]

- 2004년 17.2%였던 서울시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17~23% 수준에서 증가경향을 보이며 등락
- 같은 기간 전국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도 18~23% 수준에서 증가경향 유지

표 1. 서울 및 전국의 반려동물 보유율 조사결과

연도	보유가구(%)		출처
	서울	전국	
2016	20.4	-	유기영·이종찬, 2016,「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서울연구원
2015	21.5	21.8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
	18.0	19.0	한국갤럽, 2015,「반려동물과 동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3	16.7	-	서울시, 2014,「201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
2012	21.7*	17.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2010	20.1	17.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201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2006	22.9	22.6	
2004	17.2	-	유기영, 2004,「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수도권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임

ㅇ 사람의 보살핌을 많이 요구하는 개 중심의 반려동물 보유형태가 지속

- 개 보유 가구 비율이 2004년 96%에서 2016년 85.8%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개를 선호하는 가구가 절대적 다수
- 고양이 보유가구 비율은 2004년 5%에서 2016년 26.6%로 증가
- 가구당 보유 마릿수도 개는 2004년의 1.3마리 수준을 유지하는 데 반해 고양이는 2004년 1마리에서 2015년 1.8마리로 증가

1) 이 연구에서 반려동물은 개나 고양이로 한정하며,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개 또는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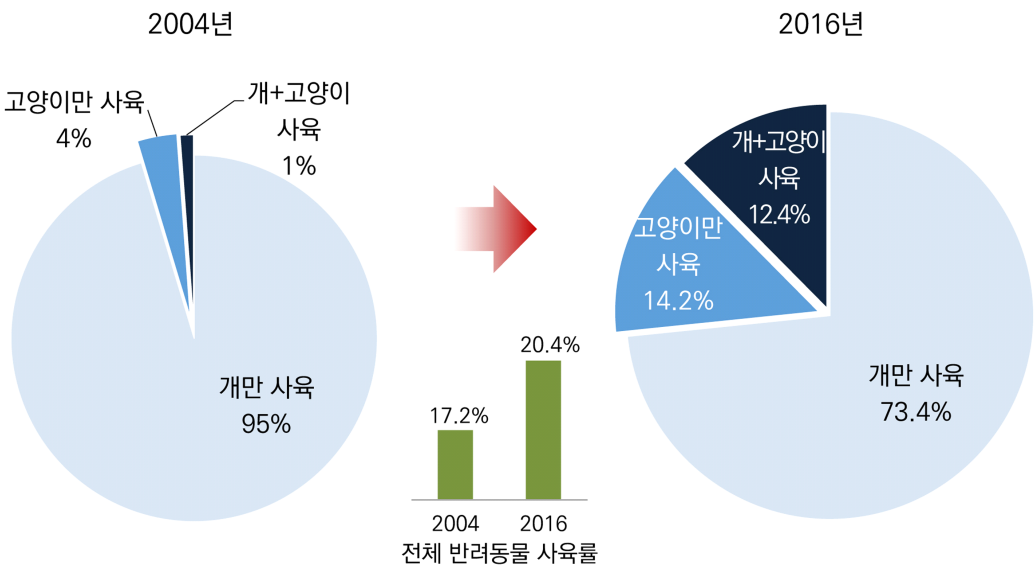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반려동물 사육자의 개 · 고양이 보유 비율

자료: 유기영, 2004,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유기영·이종찬, 2016,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서울연구원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지속적인 성장 중

- 연 1조 1천억 원 ~ 1조 2천억 원 수준의 시장규모(통계청, 2015)

- 사료 및 관련 용품(3,849억 원), 수의업(6,551억 원), 반려동물 장묘 · 보호 서비스업(338억 원) 등 2014년 기준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총 1조 738억 원
- 통계청의 가계지출에 기반을 둔 2015년 연간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은 약 1조 1,565억 원
- 2011년 업계 추산 1조 2천억 원[2], 농촌진흥청 추산 1조 8천억 원[3]
- 반려동물 관련 보험시장 역시 정확한 시장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

2) 서울경제, 김태성 기자, [中企현장] 급성장하는 애완동물 용품 산업, 2011.4.7.

3) 지상윤 · 문홍길, 2011, "견우시대 반려견산업 다시 보기", 「RDA Interrobang」, 43호,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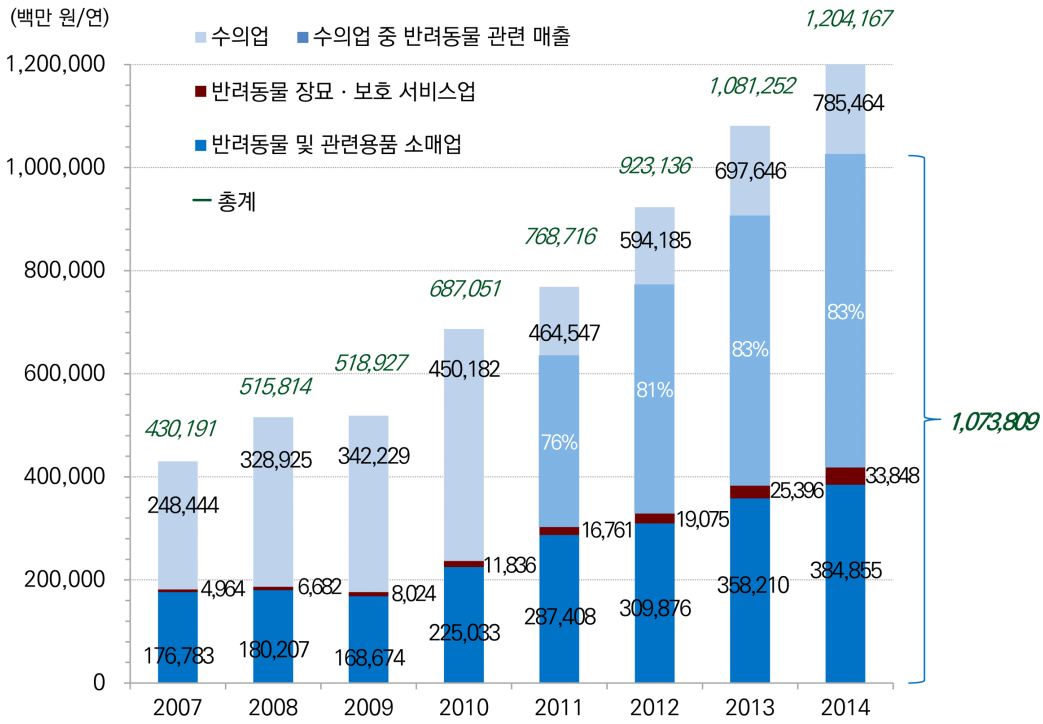

그림 2. 반려동물 관련 산업 매출액 추이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http://kosis.kr

ㅇ 일부 기관은 2020년까지 관련 시장이 3~4배 성장 전망

- 황명철 · 김태성(2013)은 2020년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를 5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고, 이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3~4년 내에 3배 성장 전망[4)]

4) 황원경, 2015, "국내외 반려동물보험 동향과 시사점", 「KB 지식 비타민」, 15-23호, KB경영연구소 재인용

획득 경로는 대부분 지인이나 판매업소

ㅇ 50% 이상이 지인을 통해 반려동물을 획득해 사육정보 전달에 취약

- 관련 조사 결과 동물판매업소를 통하여 반려동물을 구한 가구는 26~27% 수준이며 반려동물 사육교육을 철저히 받는 유기동물 입양은 10% 이내에 불과
- 운송과정에서 동물학대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한 반려동물 구입도 7%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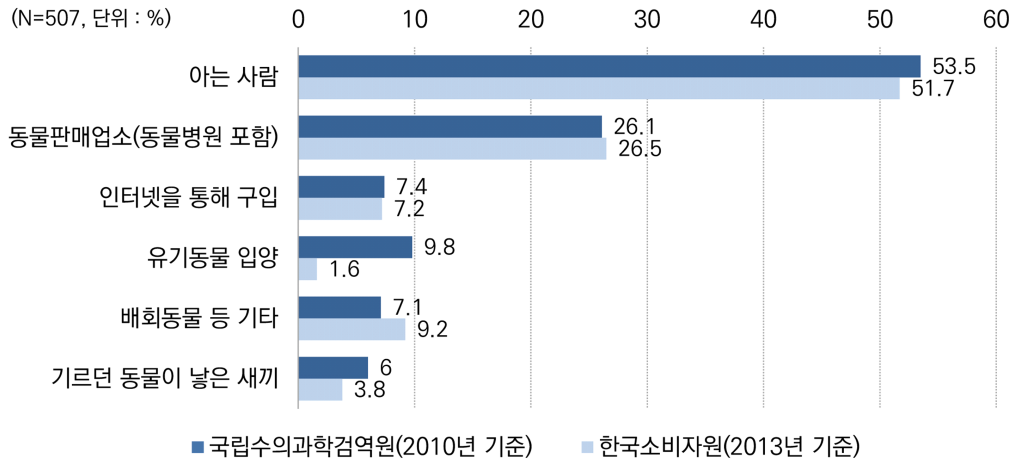

그림 3. 반려동물 획득경로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결과

자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 「201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김선희, 2013,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 13-21호, 한국소비자원

지속되는 반려동물의 유기행위

ㅇ 감소하는 추세이나 연간 약 9천 마리의 유기동물이 여전히 발생

- 유기동물 수는 2010년 18,624마리를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5년에도 8,902마리의 유기동물을 자치구에서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조치
- 서울의 유기동물 발생률(%, 전체 반려동물 수 대비 유기동물 수)은 2015년 0.8%로 2004년 0.9%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일본 도쿄의 0.2%를 크게 상회[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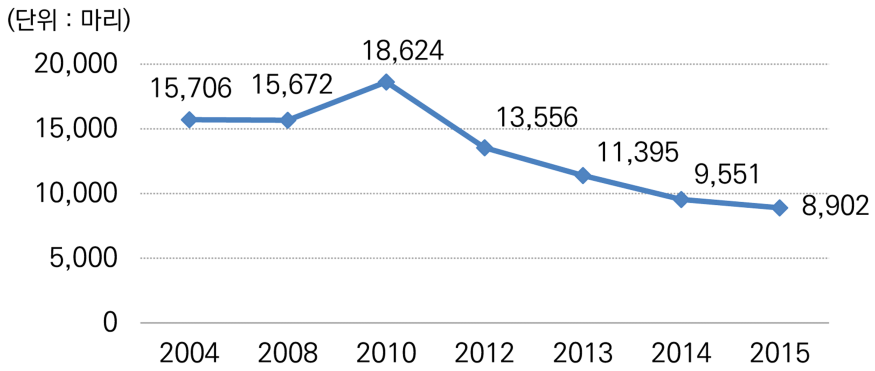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유기동물 발생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동물보호 · 복지 실태조사 결과

5) 가구당 개 사육마리로 추산한 값임 | 반려동물 사육 마리 수 : 4,189,948가구(2015년) × 20.4%(반려동물 보유가구, 이 연구의 조사결과) × 1.27마리(가구당 개 사육 마리 수,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년) = 1,085,532마리 | 유기동물 발생률 : 8,902마리(2015년 유기동물 수) ÷ 1,085,532마리 × 100 = 0.8%

반려동물 사육기반은 제자리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관리가 서울시의 주된 업무

o 실질적인 반려동물 관리업무는 자치구가 수행하고 사육문화를 바꿀 교육사업은 부재

- 자치구가 유기동물 구조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체 동물보호센터나 입양센터를 확보한 경우는 전무하고 대부분 민간시설에 위탁
- 서울시가 반려동물과 동물복지를 위해 확보한 시설은 1개소의 동물분양센터와 3개소의 반려견놀이터(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에 불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20개 자치구 유기동물 보호)

서울시 동물입양센터
(서울대공원에 소재)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
(서울시 총 3개소)

그림 5. 서울시 및 자치구의 반려동물 관련 시설

표 2. 조례에 나타난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동물보호와 관련된 역할

구분	서울시장	자치구 구청장(구로구)
동일한 역할	· 포괄적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증진, 관련 시책 추진, 시민참여 보장 ·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 ·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복지 실태조사 ·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 지정 · 운영 · 길고양이의 관리 · 출입 · 검사 · 동물분양센터의 설치 · 운영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개별 역할	·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선포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동물보호센터의 감독 · 유기동물의 구조 · 보호 · 관리 · 반환 · 피학대동물 구조 · 보호 · 관리

유기동물 관리는 사후적 대응으로는 한계

ㅇ 유기동물 관리에 공공 지출이 증가

-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10일간 보호하면서 유기동물 1마리당 약 9만 원, 2015년의 경우 연간 8억 원의 비용을 지출
- 2016년 1월부터 서울시가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면서 구조·보호비용이 1마리당 약 16만 원으로 증가

ㅇ 반려동물관리 행정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업무는 과중

- 중앙정부는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이, 자치구는 주무관 1명이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상황
- 특히 자치구 담당자는 연간 1천여 건의 관련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하루 평균 2시간을 민원업무 처리에 투입

표 3. 반려동물 관련 행정조직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동물복지담당(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팀장 1명, 주무관 1명) 동물관리팀(팀장 1명, 주무관 3명)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일자리경제과 지역보건과 등	동물복지팀(팀장 1명, 주무관 1명) 지역경제팀, 유통관리팀, 감염병예방팀 등(주무관 1명)

ㅇ 민간보호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로 공공부문의 빈 공간을 메우기엔 역부족

- 동물 입양, 바른 사육방법 교육,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학대동물 구조 등 정부가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포괄하여 다양한 사업을 동물보호단체가 수행
- 기부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동물보호시설 입지에 대한 시민들의 기피로 활동공간이 제한적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카라 더불어숨센터
(서울 마포구 소재)

케어(동물사랑실천협회)
구호동물입양센터
(서울 답십리, 퇴계로 소재)

그림 6.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

반려동물 사육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전환

유기동물과 동물학대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불가피

ㅇ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이 29%까지 증가 예상

- 현재 반려동물 비 보유가구 중 11.8%가 장래에 반려동물 보유를 희망하고 반려동물 보유가구 중 5.1%만이 사육 중단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
- 추산 결과 장래 서울시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28.8%까지 증가 예상
-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이 높은 해외의 선진 동물복지시설에 비해 민간단체의 역할이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공공영역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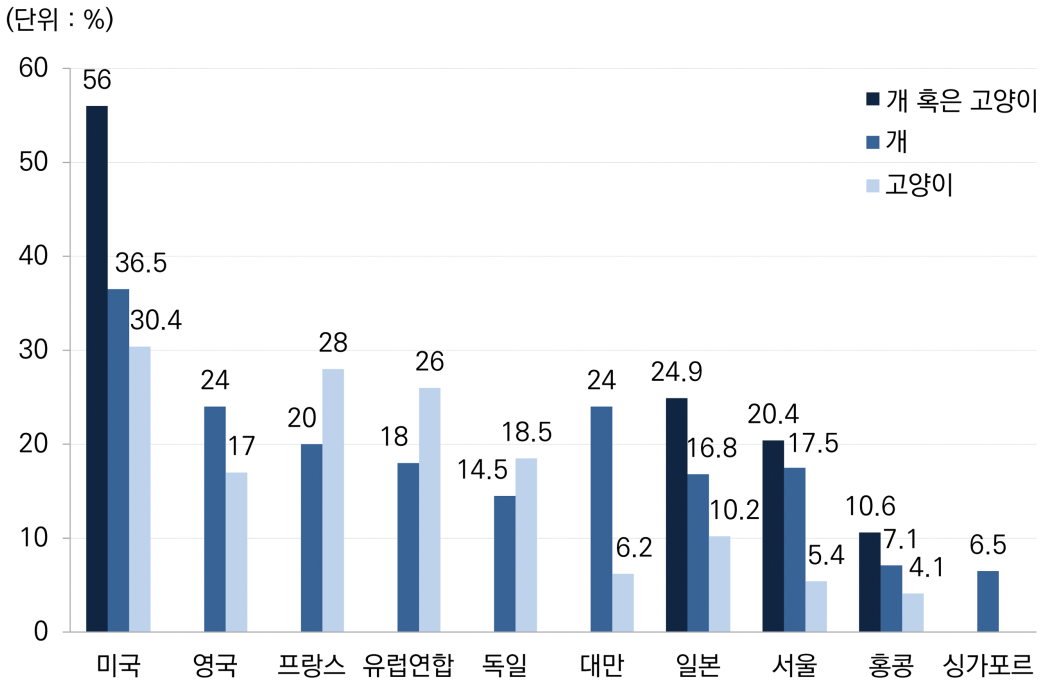

그림 7. 세계 주요 국가 · 도시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자료 : 미국(AVMA), 영국(PFMA), 유럽국가(FEDIAF), 일본(Japan Pet Food Association), 타이완(行政院 農業委員會), 홍콩(Hong Kon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싱가포르(REACH)

○ **사후대책보다 사전대책으로 반려동물관리 방향을 전환**

- 사육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반려동물 보유자 비율은 24%이고 유기충동을 경험한 사람은 42.6%에 달해, 기존의 관리 방식으로 동물학대 방지는 역부족
- 사육포기동물의 인수, 사육여건을 감안한 반려동물 보유, 바른 사육능력 향상, 교육 등 동물유기와 학대의 근본적 차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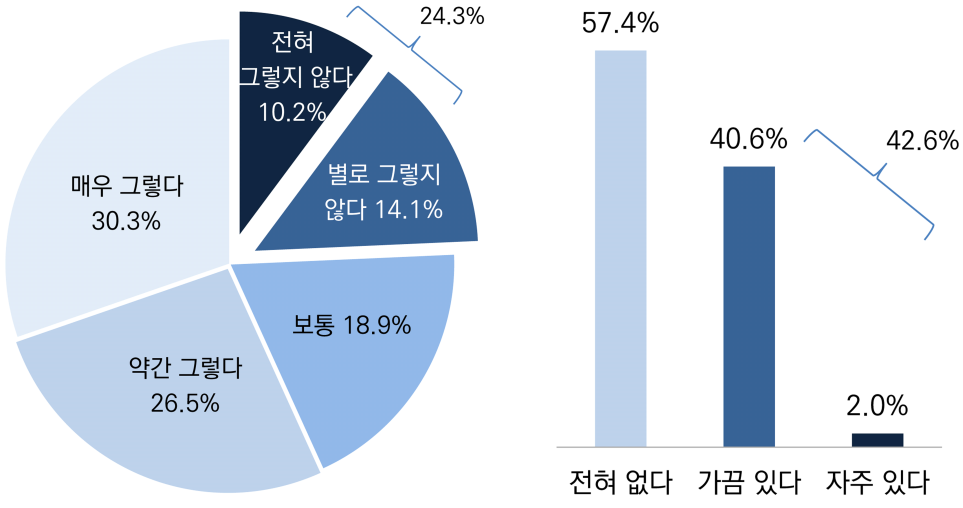

그림 8. 보유자들의 반려동물 사육 정보 취득과 유기 충동 경험에 대한 응답

서울시민도 동물복지지원시설의 필요성에 동의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서울시 동물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지[6)]

- 조사 대상의 93%가 외국과 같은 동물복지시설 운영에 찬성

• 반려동물을 시민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55%), 자치구 중심의 동물보호활동으로는 공공영역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인식(50%)

•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나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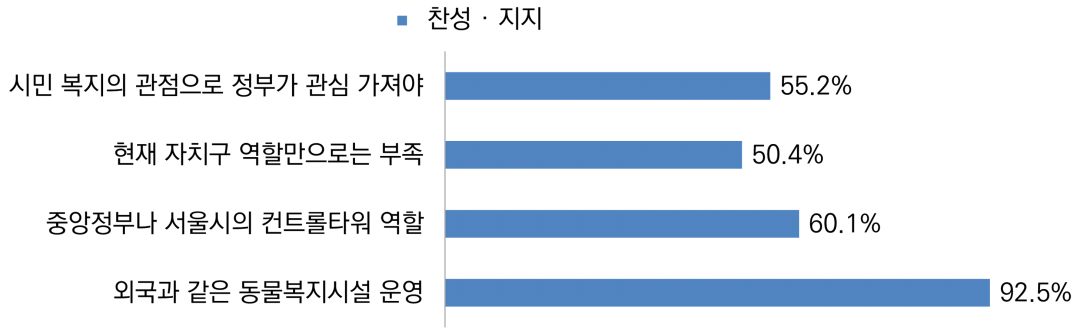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시 동물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서울시민의 반응

- 서울 시민이 선호하는 동물복지시설의 핵심 업무는 예방접종 및 동물치료

• 예방접종 및 동물치료(1+2 순위 응답자 59%), 기본소양에 관련된 정보 제공(43%), 동물의 구조나 인수(42%) 등을 상위 기능으로, 장례시설(2%), 소비자 피해 상담(12%), 여행이나 장기출타 시 반려동물 보호(14%) 등을 하위 기능으로 추천

• 동물복지시설 운영 시 장기적으로 유기동물 처리비용 절감(4억 원), 행정업무 부담 완화(15억 원), 환경분쟁 억제(44억 원) 등의 효과로 연간 63억 원의 편익 예상

6) 설문목적 : 반려동물 보유실태 및 동물보호 정책수요, 대상 및 응답자 수 : 서울시 소재 거주자 예비표본 2,567가구, 반려동물 보유가구 507가구, 반려동물 비보유가구 507가구, 조사기간 : 2016년 3월 25일 ~ 4월 4일(11일), 주요 내용 : 반려동물 보유 경험, 보유자의 사육 실태, 동물복지시설 관련 서울시와 자치구 정책 수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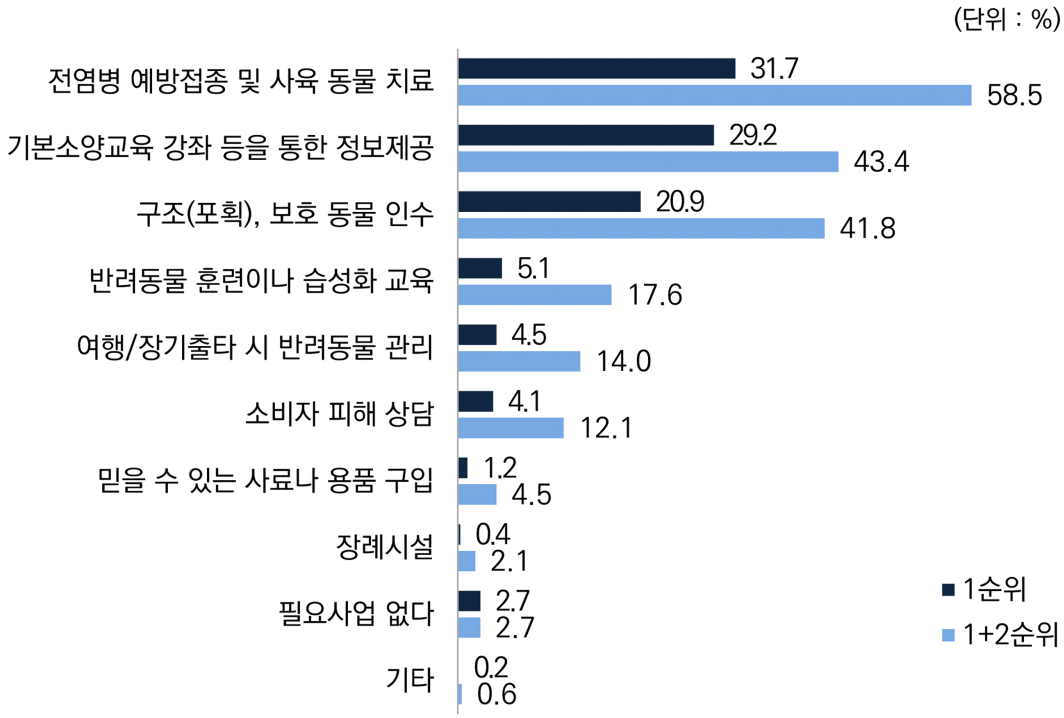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시 동물복지시설의 기능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

동물복지시설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동물보호활동 전개 가능

- 사육포기동물 인수, 교육, 홍보 등은 외국 선진 사례의 공통 기능

- 일본 도쿄는 반려동물의 관리를 도쿄도가 주도하고, 미국 뉴욕시는 공공시설과 민간 보호단체 시설이 대등한 역할을 수행
- 영국 런던은 RSPCA(1824년 설립, 영국 왕실도 주요 후원자의 하나) 같은 민간구호 단체가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주도
- 외국의 선진 사례들은 반려동물 사육문화를 바꾸고 사육기반을 갖추는 기능까지 수행하며, 공공과 민간단체의 시설이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
- 외국의 선진 사례들은 각종 수수료 수입, 기부금 등으로 운영재원을 다양화하여 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표 4. 동물복지시설 운영 선진 사례

구분	일본 도쿄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서울
이름	동물애호상담센터	뉴욕시 ACC	ASPCA	RSPCA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민간동물병원
운영	도쿄도 직영	뉴욕시 업무대행	민간구호단체(전국)	민간구호단체(전국)	자치구 업무대행
기능	· 구조·보호·입양 · 동물 치료·병원 운영 · 사육포기동물 인수 · 동물취급업 관리 · 길고양이 관리 ·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 동물보호 교육·홍보	· 구조·보호·입양 · 동물 치료·병원 운영 · 사육포기동물 인수 · 길고양이 TNR · 사체 수거 및 처리	· 구조·보호·입양 · 동물 치료·병원 운영 · 사육포기동물 인수 · 동물사회화 교육 · 길고양이 TNR · 법제도 연구개발 · 동물보호 교육·홍보	· 구조·보호·입양 · 사육포기동물 인수 · 길고양이 TNR · 동물학대자 기소 · 동물 보호 교육 · 법령 제정 · 보험상품 개발 · 동물병원 운영 · 동물보호 교육·홍보	· 구조·보호·입양 · 길고양이 TNR · 서울대공원입양센터 (서울시 직영)
재원	도쿄도 재원 각종 수수료	뉴욕시 재원 각종 수수료 기부금	기부금 동물병원 수입 각종 수수료	기부금 유산수입 각종 수수료	자치구 재원 서울시 지원

주 : ACC : Animal Care Center, ASPCA :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 :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Ⅲ. 서울시 반려동물센터 도입방안

반려동물센터 도입을 통한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

효과적인 시설의 정착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수행

- **당면 현실을 감안할 때 서울시 반려동물센터의 운영은 필요하나 세심한 설계와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

-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관리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선진 사례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서울시 반려동물센터를 대안으로 제시
- 자치구, 민간동물보호단체, 관련업종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반려동물센터의 기능, 시설 확보, 지속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서울시가 수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을 우선 확립하고 시범시설을 운영해 그 가치를 인정받은 뒤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전역에 확산

표 5. 서울시 반려동물센터 도입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 전략
명확한 기능 확립	· 자치구보다 서울시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기능 담당 · 민간보호단체와 협력하고 시장과 중복기능 배제 · 도심입지를 위해 동물치료를 하되 공적 기능에 한정
지속가능한 시설 · 조직 확보	· 생활권역별로 센터를 확보하여 시설 남발 억제 · 기능과 경험을 반영한 인력 배치 · 운영재원 다각화로 재정건전성 강화
정착을 위해 점진적으로 접근	· 서남생활권 반려동물센터로부터 출발 ·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상세프로그램 구상 · 효과 평가 후 확대

자치구 · 민간단체 · 시장의 역할을 고려한 명확한 기능 확립

자치구보다 서울시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기능을 담당

- **사육포기동물 인수, 보호동물 입양, 교육, 연구개발, 상담 등의 업무는 서울시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

• 자치구별로 수행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지 않고, 전문성과 표준화가 요구되는 기능은 서울시가 담당

• 동물의 구조, 구조 동물의 보호, 길고양이 관리 같은 신속한 대응과 충분한 시설공간이 필요한 현장중심형 기능은 자치구가 지속적으로 수행

표 6. 자치구보다 서울시 수행이 효과적인 서울시 반려동물센터 기능

기능	이유
사육포기동물 인수	· 사육포기 상황에 처한 반려동물 보유자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 가능 · 전문성을 감안하면 서울시 통합시설이 효과적
보호동물 입양	· 전문성과 집중화 필요 · 서울시 시설이 현재 운영 중이며, 서울시 통합시설로 운영이 효과적
교육	· 전문성과 집중화 필요 · 서울시 통합시설이 효과적
연구개발	
상담	
지역 동물보호활동가 플랫폼	· 자치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제한 · 서울시 통합시설이 네트워킹, 정보공유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

민간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고 시장과 중복되는 기능은 배제

ㅇ 사육포기동물 인수, 보호동물 입양, 교육, 연구개발, 상담 등은 서울시 반려동물센터에서 수행하되 민간동물보호단체와 협력

- 민간동물보호단체들이 입양, 교육, 연구, 홍보 등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나 전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울시 반려동물센터도 이들 단체와 협력
- 이미 시장이 충분히 형성된 동물병원 운영, 동물호텔 운영, 장례업 등의 기능은 시장에서 수행하도록 배려

표 7. 서울시 반려동물센터의 민간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할 기능과 시장에 맡길 기능

기능		이유
사육포기동물 인수	민간보호단체와 협력할 기능	· 일부 민간보호단체에서 수행 중이나 일부지역에 한정 · 유기동물 억제 측면에서 공공 수행 필요
보호동물 입양		· 서울시가 1개소 운영 중이고 일부 민간보호단체가 노하우 축적 · 공공에서 개소수 확대 필요
교육		· 일부 민간보호단체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노하우 축적 · 공공부문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바람직
연구개발		· 일부 민간보호단체에서 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영 · 공공부문도 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영 바람직
상담		· 일부 민간보호단체에서 상담 프로그램 운영 · 공공부문도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바람직
동물병원 운영	시장에 맡길 기능	· 이미 시장이 형성됨(서울 844개소 2016.12.기준) · 동물치료, 예방접종, 개체인식장치 삽입 등 업무 수행
동물호텔 운영		· 이미 시장이 형성됨 · 수익성이 있어 공공부문 참여 불필요
장례업		· 이미 시장이 형성됨(전국 22개소 2016.12. 기준) · 수익성이 있어 공공부문 참여 불필요

도심입지를 위해 동물병원을 포함하되 공적 기능에 한정

ㅇ 반려동물센터가 시민과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동물병원 기능 포함이 불가피

- 동물병원 기능을 갖춰야 서울시민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지와 상업지역에 동물과 관련된 시설이 입지 가능
- 반려동물센터의 동물병원은 입소동물, 저소득층 반려동물, 구조 동물 등의 치료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같은 공적 기능만 수행

ㅇ 서울시 반려동물센터의 기능은 사육포기동물 인수, 동물입양센터 운영, 동물병원 운영, 교육, 연구개발, 상담, 지역동물보호활동가 플랫폼 운영 등

표 8. 서울시 반려동물센터의 기능(안)

기능	내용
사육포기동물 인수	·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적정한 사육이 불가능한 경우 – 사육자가 사망하여 보호자가 없는 경우 – 외국이나 사육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 파산하여 적정한 사육이 불가능한 경우 – 알러지, 공격성 등으로 사육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사육자의 사망이나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수수료 징수
동물입양센터 운영	· 각종 입양촉진 사업 추진 – 동물보호주간 행사, 온라인 입양 정보 페이지 운영
동물병원 운영	· 사회적 약자가 보유한 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중성화수술 ※ 사회적 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입소동물, 응급구조동물의 치료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 모든 입소동물에 개체인식표 삽입
교육	· 사육자 및 입양자에게 바른 사육방법 교육 · 동물보호교육 · 어린이 대상 체험교육 · 법상 의무교육대상자 교육 ·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연구개발	·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초조사 · 법 · 제도
상담	· 동물학대 상담 ·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 대처 방법 · 사육자에게 맞는 반려동물 선택, 올바른 사육방법 등
지역 동물보호활동가 플랫폼 운영	· 각종 교류 및 활동 지원사업 · 교육 및 정보 제공 · 커뮤니티 공간 제공

지속가능한 시설 · 조직을 확보

접근성 고려, 4개 생활권별로 센터를 확보하여 역할을 수행

- **서울시 서북권+도심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에 1개소씩 최대 4개소 확보**
-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시설을 설치
- 개소당 1,000㎡(일본 도쿄 동물애호센터 사례) 이내의 충분한 건물공간을 확보
- 사육포기동물 인수처, 입소동물 보호공간, 동물입양처, 동물병원, 교육 · 세미나실, 반려동물 사회화교육장, 상담실, 연구개발실, 자료실, 봉사지원실, 행정실 등 배치

기능과 경험을 반영한 인력 배치

- **인수입양과 교육상담 분야는 경험이 축적된 민간보호단체에 위탁**
- 조직은 동물병원팀, 인수입양팀, 교육상담팀, 기획행정팀으로 구성하고 최소 16명 인력 필요
- 보호 동물과 산책, 청소, 세탁, 행사지원 등에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동물과 친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 역시 절감

표 9. 서울시 반려동물센터 조직과 인력(안)

구 분	업 무	인 력(인)	비 고
시설장	· 시설 대표	1	
동물병원팀	· 팀업무 총괄기획, 관리 · 동물 건강관리 및 치료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 구조보호	1 1 (수의사) 1 (수의사) 2 (구조1, 보호1)	
인수입양팀	· 팀업무 총괄기획, 관리 · 인수 · 입양	1 2 2	비영리단체에 위탁
교육상담팀	· 팀업무 총괄기획, 관리 · 교육 · 상담	1 1 2	비영리단체에 위탁
기획행정팀	· 팀업무 총괄기획, 관리 · 행정 · 재무 · 청사관리 · 연구기획	1 2 1 1	
계		20	

운영재원의 다각화로 재정건전성을 강화

o 각종 수수료와 기부금 활용으로 서울시에 대한 재정의존도 완화

- 적정수준의 사육포기동물 인수 수수료, 입양 책임비, 교육 수수료 등을 징수하여 운영재원으로 활용
- 시민의 자발적 기부금도 운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점진적 적용

서남생활권 반려동물센터로부터 출발

- 1차 사업지로 인구가 많은 서남생활권이 적절, 나머지는 2차 사업으로 추진

-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 등 7개 자치구로 구성된 서남생활권은 300만 명의 거주인구를 보유
- 4개 권역 중 가장 많은 유기동물 발생(2015년 기준, 서울시 전체 32%(2,844마리))
- 나머지 3개 생활권은 서남권 반려동물센터의 성과를 평가한 후에 추진

그림 11. 서울시 생활권 분류 및 1 · 2단계 사업지 구분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상세 프로그램을 구상

- 사업 추진을 정교하게 준비하고 투자심사(행정절차)에 대비

- 1단계 공사에 3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이며, 기본계획에서 재무성과 경제성을 평가하므로 투자심사에 활용 가능
- 특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공사방법, 운영 프로그램 개발, 시설의 유지관리방법 등에 관한 상세자료도 확보

표 10. 서울시 반려동물센터 설치 절차

용역 절차	행정 절차	내용	주관부서	비고
기본 구상		[내용] 사업의 필요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등	서울연구원→ 동물보호과	· 서울연구원 보고서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으로 갈음
⇓	사업계획 수립	· 시장, 부시장 또는 시민건강국의 내부결재	동물보호과	·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활용하여 작성
타당성 조사		[의무적용범위]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공용청사 100억 원 이상 [유의사항]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은 분리하여 수행	동물보호과 ↓ 재정담당관	· 타당성조사 비 의무사업이어도 사업 필요성 확인 및 투자심사의 원활한 수행 유리
	⇓			
기본 계획		[의무적용범위]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공용청사 100억 원 이상	용역업체 ↓ 동물보호과	· 타당성조사 비 의무사업이어도 사업 필요성 확인 및 투자심사의 원활한 수행 유리
	기본계획 수립	· 시장, 부시장 또는 시민건강국의 내부결재	재정담당관/용역업체→동물보호과	· "기본구상", "타당성조사용역", "기본계획용역" 등을 토대로 내부에서 작성
	⇓			
⇓	투자심사	[내용] 사업의 필요성, 재무성, 경제성 등	동물보호과→ 재정담당관	· 30억 원 이상일 경우 투자심사 대상
	⇓			
	사업예산 편성	· 지출규모를 확정하여 예산에 반영	예산담당관	
	⇓			
⇓	공사수행 방식결정	· 공사 수행 방식 결정	동물보호과	
	⇓			
설계 부터	설계 · 발주 · 공사	· 설계 발주 공사	관련 부서	